



# 보호주의 확산과 다국적 보험회사의 이슈

권오경 연구원

전 세계적인 보호주의(Protectionism) 확산의 영향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 추진 등이 이루어지며 다국적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글로벌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음. 영국에서 사업하는 보험회사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.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제 개혁은 미국 보험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됨. 보호주의 조치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보험수요 성장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, 리스크가 자국 보험시장에 집중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됨

## ■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(Protectionism) 확산의 영향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이 추진되며 다국적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글로벌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음<sup>1)</sup>

- 세계 정치의 향방이 보호주의로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, 전 세계 보험시장의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

## ■ 영국에서 사업하는 보험회사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<sup>2)</sup>

- 영국의 건전성감독당국(PRA)은 2017년 4월 역외사업을 수행하는 은행, 보험, 지정투자업자에게 EU 철수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등의 비상계획을 준비할 것을 언급함
  - 보험회사는 영국과 EU 지역에서의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옵션을 갖게 됨
  - 첫째, 영국과 유럽경제지역(EEA) 회원국 모두에서 자격 및 자본요건을 갖춘 자회사 운영 방식,
  - 둘째, 유럽경제지역(EEA) 회원국에 보험회사 본체를 두고 영국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,
  - 셋째, 영국에 본체를 두고 EU에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,
  - 넷째, 타 보험회사와 프론틱(fronting)<sup>3)</sup>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

1) A.M.Best(2017. 11. 2), "Rising protectionism creates market access issues for multinational insurers"

2) 영국의 금융서비스는 그 동안 동일인 원칙(single passport rule)으로 EU 내 한 회원국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타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할 수 있었음

- 브렉시트로 EU 단일시장의 영업권한 유지가 불투명해지며 2017년 한 해 동안, 영국 소재 보험회사들의 EU 내 타 국가로의 주소지 이전 발표가 이어졌음
  - 영국 런던을 대신할 EU 거점으로 룩셈부르크, 아일랜드, 벨기에가 가장 선호됨
  - 주소지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고객 접근성, 유능한 인력 조달 가능성, 지점 유무 지역, 국가별 세제가 고려되었으며, 특히 규제당국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음

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제 개혁은 미국 보험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됨<sup>4)</sup>

- 세제 개혁안의 핵심내용인 최고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투자 즉시공제 처리 등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 증가가 예상되어 관련 미국의 보험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
- 또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여 기업의 해외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환류감세조치 (repatriation tax)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으로 활용 가능
- 반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다국적 보험회사의 경우 법인세 인하 혜택보다 해외 본사로의 보험료 송금에 대한 과세로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생김<sup>5)</sup>
  - 이로 인해 버뮤다보험협회는 전 세계 재보험 공급규모가 최소 180억 달러 감소, 보험료는 연간 50억~2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

■ 또한 보호주의 조치는 신흥국 보험시장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, 리스크가 자국 보험시장에 집중 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됨 **kiri**

3) 다른 나라 보험기관 간 업무 협력 형태로, 자국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보험증권을 현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신 발급케 하는 것  
 4) 미국의 세제 개혁안은 9월 27일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에 의해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12월 2일 법안통과, 12월 20일 상하원 가결, 의회 입법절차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2018년부터 법안이 시행됨  
 5) Financial Times(2017. 12. 20), "Insurers see tax plan hitting Bermuda and Lloyd's of London"